

(試論)

( , / )

(超越, transcendence)

(無限, infinity)

(啓示, revelation)

가

(concern)

가

( )

(交織)

가

(interest)

,

( )

I. ( )  
 II. ( ? )  
 III. -  
 IV. ,  
 V.

. ( )

오늘날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골동품이 되어 버린 단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나는 ‘문리과(文理科)대학’이라는 말을 꼽고 싶다. 단언컨대, 한국의 30-40대 대학교수들 대부분은 문학교수와 사학교수와 철학교수가 수학교수, 물리학교수, 화학교수, 생물학교수와 하나의 패컬티(faculty)를 이루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각각의 전공에 돌입하기 전에 ‘교양’삼아 이수했던 몇몇 입문과목의 어렴풋한 기억들뿐이다. 하나의 총체성으로서 진리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부담이나 각각의 전공들로 진리를 조각내는 것에 관한 고통은 이미 자취를 감추어 버린 지 오래다. 오로지 이른바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응용학문들만이 경쟁적으로 이름값을 높이고 있을 따름이다. 법대와 상대와 의대와 공대는, 그런 의미에서, 경쟁자들인 동시에 동업자들인 셈이다.<sup>1)</sup>

나는 이 글에서 위기에 처한 문과학문 전체의 기독교적 재구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이 전제되어 있다. 논의의 범위를 문과학문에 한정할 이유

1) ( , 2001).

는 전적으로 내 자신의 학문적 역량이 그 바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문과학문의 위기는 이과학문의 위기와 동전의 양면이며, 따라서 그것은 학문 자체의 위기일 수밖에 없고, 기독교적 학문의 관점에서 이 위기의 원인은 하나의 총체성으로서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초월(超越, transcendence)과 무한(無限, infinity)과 계시(啓示, revelation)의 차원이 학문세계 전반에서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문과학문, 그것도 대표적인 응용학문(법학)에서 출발한 나로서는 이 문제제기를 정면에서 다루기에는 역부족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이 글은 어디까지나 문과학문에 한정된 시론(試論)이기를 자처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과학문의 기독교적 재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시론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과학문의 영역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벌어진 변화의 핵심은 전통적인 인문학(문학, 사학, 철학 등)에 더하여 새롭게 사회과학(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이 형성된 것이다. 이런 변화를 이끈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과학문과 같은 방식으로 문과학문도 재편될 수 있으며 또 재편되어야 한다는 ‘계몽적 과학주의’의 힘이었다. 예컨대, 근대 사회과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토마스 홉스는 갈릴레오로 대표되는 근대 물리학의 발전에 큰 충격을 받고 그와 같은 ‘과학적’ 방식을 이용하여 법에 관한 복종의무의 불가피성을 논증해내려고 했던 것이다(리처드 톡 외, 1993). 20세기에 이르러 계몽적 과학주의의 위세는, 사회과학의 세기라는 명칭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문과학문 전반에서 가히 압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전통적인 인문학은 학문과 비(非)학문, 곧 과학과 비(非)과학의 경계선으로 내몰렸고, 문과학문은 차츰 고집스럽게 방법론적 독자성을 수호하려는 입장(예컨대, 현상학,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이과학문의 ‘과학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예컨대, 사회진화론, 행태주의, 게임이론)으로 뚜렷이 분화되었다. 이른바 ‘(사회과학)방법론논쟁’으로 명명되었던 지난 세기의 대논쟁들은 기실 이 두 진영 사이의 치열한 기세싸움이었던 것이다.<sup>2)</sup>

물론 지난 세기의 후반에 이르러 쿤(Thomas Kuhn)이나 가다머(Hans-Georg Gadamer) 등의 선도에 따라 이러한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데리다(Jacques Derrida)를 비롯한 급진적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계몽적 과학주의 그 자체에 대한 일종의 철학적 전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학주의와 별개로 문과학문을 재구축 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데카당적 뿌리 흔들기(해체)는 그 센세이셔널한 전개과정에 비하여 그다지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 같지는 않다. 과학주의의 토대에 대한 공격적인 해체가 추진되면서, 그 결과로 등장하는 무정부주의적 독단론들에 의하여 문과학문 그 자체의 토대조차 해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날로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과학주의의 전폭적 수용여부를 둘러싼 문과학문 내부의 대립은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문과학문 자체의 활력이 저감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단적인 증거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클라이맥스를 구가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인문학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문학의 손님이 적어지는 것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문학의 주인들조차도 급속하게 신명을 잃기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이 글의 관점에서 참으로 통탄할 일은 이와 같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문과학문에 종사하는 기독교자들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껏해야 계몽적 과학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에 엉겨주춤하게 머무른 채, ‘체제로부터 생활세계를 해방하자!’면서 호기롭게 제3의 노선을 개척하고 있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식의 접근을 염려스럽게 주시하고 있을 따름이

---

2) (1984) (1987)  
 (1977: 1980)

3) 가 ( , 1999).

다. 논쟁의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은 너무 기회주의적이고, 문과학문 자체의 전면적 재구축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 모험주의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일까?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 다수의 기독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엽말단의 분과 학문을 ‘열심히’ 하면서 판짜기를 새롭게 할 누군가의 등장을 애처롭게 기다리는 것뿐이다. 허나 그 외로운 기다림은 언제나 전공할거주의와 결탁하여 맹목 적 아집(我執)으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한다. 때문에 기독교학문은 자꾸만 더 논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급기야는 중심과는 상관없는 변방의 울부짖음으로 왜소화될 개연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언제나 그렇듯이, 이처럼 곤혹스런 상황을 타개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신앙고백의 힘으로 전개되는 원초적 저항의 논리다. ‘문화명령’이나 ‘총체적 복음화’의 명령에 순종하여 학문의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그것이다. 이런 주장은 적어도 기독교학문의 변방화, 왜소화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키며, 동시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면에 드러낸다.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전개된 기독교세계관운동은 여기서 진일보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제공하는 ‘세계관’(Weltanschauung)이라는 방법론적 기초개념이나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는 적어도 ‘무엇이 기독교적 관점인가?’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헌이 아카데미아의 현재 상황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선언적으로(혹은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까닭에 기독교세계관담론은 한국사회에 등장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학술적 담론의 핵심을 형성하거나, 핵심에 편입되거나, 핵심의 조명을 받지 못한 채, 일종의 교



그러나 그렇더라도 다음의 한 가지 질문은 반드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현재의 기독교학문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소화할 만큼 제대로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기독교세계관담론에 대한 위의 언급에서 표명했듯이,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다지 긍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떤 의미에서 계몽적 과학주의가 문과학문을 압도할 가능성과, 그에 대한 극단적인 반동이 무정부주의적 독단론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기독교학문 내부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물러나 지엽 말단의 분과학문을 ‘열심히’ 하면서 판짜기를 새롭게 할 누군가의 등장을 애처롭게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까닭에 나는 이 글에서 문과학문의 기독교적 재구축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논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그 시론의 전개에 앞서서, 특히 문과학문의 영역에 관련하여 현재의 기독교세계관담론과 구분되는 일종의 방법론적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리 말하자면, 다시금 하나의 총체성으로서 진리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부담을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문과학문과 이과학문으로 진리를 조각내는 것에 관한 고통을 감수하지는 것이 이 제안의 요체다.

첫째는 기독교학문으로서의 자기정당화가 필요한 영역을 좁히는 태도를 방법론적으로 과감히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과학문에 종사하는 기독교학자들에게 이와 같은 작업범위의 한정은 커다란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지난 수세기 동안 문과학문을 짓눌러 온 자연과학에 대한 깊은 열등감에서 방법론적으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쿤 등의 문제제기 이후 어차피 계몽적 과학주의의 신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잠정적 해방선언은 아카데미아의 현실에서 아주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문과학문의 기독교학자들에게 자연과학의 방법론적 성과를 이용할 것은 하고 말 것은 말겠다는 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문화’의 분리를 개탄하기보다

는 차라리 그 분리의 안온함을 즐기면서, 문과학문 독자의 학문적 방법론을 개발하겠다고 호기를 부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sup>6)</sup>

둘째는 학문적 추구의 목표인 진리의 성격과 관련하여 ‘진리의 인격성’이라는 명제를 과감하게 전면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진리의 비인격성’에 기초한 계몽적 과학주의의 취약점을 타격하자는 주장이며, 실용주의나 실존주의처럼 제한된 범위에서 진리와 인격을 관계지우는 입장들을 창조적으로 극복하자는 주장이다. 문과학문의 경우에 이처럼 진리 그 자체의 인격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입장은 적어도 이과학문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문과학문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들(사회)에 대한 이해인 까닭에 진리(또는 문과적 지식)의 인격성을 학문적 추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어떤 감동이나 울림이나 인격적 완성도 바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과학문에 제한해서 말한다면, ‘문과적 지식의 인격성’이라는 명제는 반드시 수호해야만 할 가치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7)</sup>

셋째는 특히 기독교세계관담론의 경우에 ‘창조-타락-구속-완성’의 프레임

---

6) 가 ,  
 "... 가 . ( )  
 가 . 가 ... (C. P. , 1996: 15)."

( , 1999).  
 7) ( , 2002, 3 ).



워크를 지금까지보다 한결 느슨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계몽적 과학주의의 권력은 ‘답은 언제나 하나이고 하나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며, 문과학문의 경우에 이것은 대체로 환원주의(reductionism)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기독교학문의 내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창조-타락-구속-완성’의 어느 한 축에 나머지를 환원해버리는 태도가 득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컨대 신앙에 대한 학문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창조를, 선교도구로서의 학문(신앙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구속을 환원주의적으로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주장은 이들 사이에 일종의 신사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독교학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물론 입장에 따라 강조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네 개의 축 가운데 어느 하나도 논증과정에서 빼놓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하지는 것이다.

넷째는 기독교학문의 전개과정에서 항상 모습을 바꾸며 등장하는 두 종류의 적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하자는 것이다. 그 하나는 ‘유물론적 자연주의’(perennial naturalism)며, 다른 하나는 ‘계몽적 인본주의’(enlightenment humanism)다. (Alvin Plantinga, 2001) 이 두 가지는 마치 메두사의 머리들처럼 존재와 당위, 사실과 가치, 이론과 실천, 전체와 개체, 머리와 가슴, 연구와 교육, 전공과 교양 등 학문세계를 지배하는 각종 이항대립구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기독교학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한다. 기독교학문의 목표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위협에서 자유로운 중용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방법론적 지침으로서 일단 이처럼 극단화하려는 두 종류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試論)

이상과 같은 방법론적 지침을 염두에 두면서, 이하에서 나는 문과학문의

기독교적 필수성을 논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기독교적 재구축을 위한 하나의 시론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sup>8)</sup>

주지하듯이,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기독교세계관의 핵심 고리들은 모두 일종의 ‘관계’적 개념들이다. 앞서 언급한 ‘진리의 인격성’이라는 명제 역시 이와 같은 관계성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할 경우 창조를 통해 발생한 본원적 관계들은 일단 (a) ‘인간 對 하나님’ (b) ‘인간 對 인간’ (c) ‘인간 對 다른 피조물’의 세 측면으로 분석될 수 있다. 타락 이전을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초두의 기사들은 이 세 측면의 복합적인 관계가 모두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다(창세기 1장). 하지만 죄(罪), 곧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세 측면은 공히 부패했다. 단절과 거부, 왜곡과 소외, 착취와 억압은 세 측면 모두에서 작용했으며,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기왕의 부패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런 이해는 창조의 회복 또는 재창조라고 할 구원의 총체적 성격에도 그대로 관철될 수 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 세 측면의 복합적인 관계가 하나의 총체성 속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복음의 총체성, Totality of the Gospel).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며,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의미의 복음의 총체성을 실현하고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실천하고 또 반성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성찰(실천과 반성)은 방법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 삼자는 또한 반드시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비록 기독교적인 의미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든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맞보지 못한 인간의 경우에는 그 모두가 기본적으로 왜곡되

8)

( , 1985, 10 가 ).

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어긋나 있는 것이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관계의 구조 자체는 여전히 건재하며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비록 왜곡된 모습일지언정, 인간의 성찰은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고, 때때로 그것은 진리의 체계적인 추구라는 의미에서 학문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인간의 학문은 세 개의 카테고리(神學, 人間學, 自然學)로 구분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찰은 신학(神學)이고,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성찰은 인간학(人間學)/사회학(社會學)이며, 셋째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찰은 자연학(自然學)이다. 문과학문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측면(인간 對 인간)의 성찰로서 다른 두 학문(신학, 이과학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 본질적인 요청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 자체에 규정된 세 가지 관계는 학문적 성찰을 이끄는 원초적 관심(basic concern) 또는 근본적인 질문의 상이성에도 그대로 반영된다.<sup>9)</sup> 첫 번째 측면의 학문적 성찰(신학)은 근본적으로 당위(Sollen)의 물음을 가지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라는 규범적 관심이 이

9)

가  
가  
(interest)  
(가 )  
가  
(concern)

성찰을 향도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 관심은 ‘무엇을 원하십니까?’라는 물음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 답변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세 번째 측면의 학문적 성찰(이과학문)은 근본적으로 존재(Sein)의 물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은 무엇인가?’라는 사실적 관심이 이 성찰을 향도한다. 다시 말해, 이 관심은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른 피조물에게 던지고 그 답변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이 양자의 물음이 종종 혼재되어 제기되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다른 피조물을 대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피조물을 대하는 것, 즉 당위의 물음을 배제한 채 존재의 물음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신학의 과학화)이나 존재의 물음을 넘어 당위의 물음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는 것(과학의 신학화)이 그런 경우들이다. 이처럼 이 두 개의 원초적 관심들 중 어느 하나에 다른 하나를 환원시켜 버리려는 경향성은 학문영역에 작용하는 죄(타락)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두 번째 측면의 학문적 성찰(문과학문)은 근본적으로 당위와 존재의 물음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라는 규범적 관심과 ‘이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은 무엇인가?’라는 사실적 관심이 언제나 복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통합적 관심). 그 이유는 문과학문의 경우에 관심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매우 독특한 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과학문이 그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물음과 피조물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수밖에 없다. 물론 문과학문 내부에서 이 두 가지 관심은 경우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조합되기도 한다. 예컨대, 단독자로서의 인간 내면에 관한 관찰이 위주가 되는 분야(인간학)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범적 관심이 앞서고, 다른 인간 및 인간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분야(사회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실적 관심이 앞서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문과학문은 이 둘 중 어느 한쪽에 치우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만 인간을 대하거

나, 피조물을 대하는 자세로만 인간을 대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와 같이 당위의 물음과 존재의 물음의 공존은 문과학문의 본질적 요청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과학문은 특히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삶에 관한 균형감각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청되는 성찰의 방식임이 분명하다. 끊임없이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주장하는 신앙과 과학, 양자의 틈바구니에서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양자를 관계 지움으로써 삶에 관한 균형감각을 회복시키는 핵심요소인 것이다. 이처럼 문과학문, 곧 인간과 사회에 대한 학문을 중심에 둘 경우, 콩트 이후 근대학문의 확고한 전제로 작용하고 있는 실증주의의 기본 명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학문 자체의 중심이 신학에서 과학(자연학)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곧바로 문명의 진보와 상응하는 것이라는 그 전제는 이제 수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학문세계의 진상은 오히려 커다란 진자가 움직이듯이 신학과 과학(자연학)이 각기 한 차례씩 압도적 우위를 누렸던 것에 가깝다. 그리고 그 다음의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이 글이 말하는 문과학문, 곧 규범적 관심과 사실적 관심의 복합문제가 학문세계의 중심에 복권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되는 일차적인 결론은 문과학문을 신학이나 자연학(이과학문)의 하위분과로 편입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하여도 기독교학문은 결연하게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윤리적 실천의 신학적 정당화에만 만족하거나, 사태에 대한 신학적 결단 없이 과학적 분석만으로 사회적 실천을 대체하려는 태도에 대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발견된 문과학문은 과감히 갈라설 필요가 있다. 당위의 물음과 존재의 물음의 본질적 공존으로서 문과학문을 정의할 경우, 그것은 후술하듯이 ‘심정의 윤리’나 ‘과학의 윤리’가 아니라 ‘책임의 윤리’에 연결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sup>10)</sup>

한 걸음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는, 당위의 물음과 존재의 물음을 교직

10)

( , 1994).

(交織)하는 문과학문 고유의 방법론을 충실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인간(사회)현상의 객관적 분석은 당연히 그 분석을 이끄는 세계관적 전(前)이해의 정당성문제와 연결되어야만 하며, 규범적 진술의 정당성 판단 역시 그 진술을 가능케 한 사회적 원인 및 조건들의 객관적 분석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지난 세기 동안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 논쟁들을 통해 다시금 분명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객관과 주관의 지속적으로 관련시키려는 태도는 기실 문과학문의 오랜 전통 속에서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발전시키도록 자극했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문과학문은 단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 의하여 지배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문과학문의 방법론에 관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역사적 성찰이다. 이것은 문과학문의 종사자 앞에 현실로 존재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현재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작업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과거와 미래를 배제한 채 현재에만 집착하는 태도인 실증주의는 상당히 제어될 수 있다. 시간 축을 따라 연원을 추적하고 추이를 추급(追及)해 보면, 그 역사 속에서 계승된 전통과 그렇지 못한 전통이 혼재하고 있으며, 계승된 전통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적 성찰이다. 이것은 문과학문의 종사자 앞에 현실로 존재하는 인간(들)을 당위적 명령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작업이다. 검토는 입장에 따라 ‘권력’의 문제에 집중하거나(정치학), ‘효용’의 문제에 집중하거나(경제학), ‘생활양식’의 문제에 집중하는(인류학)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인간에 대한 사회적 반성은 특정한 가치와의 관련 속에서 ‘분석하는 인간’과 ‘분석되는 인간’이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 셋째는 이론적 성찰이다. 이것은 시간 축과 공간 축의 성찰이 산출하는 당연한 결과다. 역사적 성찰과 사회적 성찰은 인간에 관한 기존의 이해에 대항하여, 그것을 의심케 하는 다른 가

가능성을 확보해 준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비교의 기준으로 구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존의 인간이해를 검증하고, 보완하고, 대체하면서 새로운 인간이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낫째는 윤리적 성찰이다. 인간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이론적 성찰은 오로지 윤리적 성찰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새로운 인간이해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문과학문의 종사자에게 근본적인 물음은 결국 ‘내 앞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이다. 이처럼 윤리적 성찰은 인간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이론적 성찰이 도달하는 목적지이자 다시 그것을 추동하는 출발점이기도 한 것이다.

문과학문은 이러한 네 가지 반성의 차원을 끊임없이 왕복한다. 윤리적 반성은 다시 이론적 반성을 자극하며, 그것은 또 다시 사회적 반성과 역사적 반성을 촉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끈질긴 왕복과정을 통하여 문과학문은 기존의 인간이해에 표현된 시대정신과의 창조적 불화를 배양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시대정신을 탄생시킨다. 그 결과는 크게 보아 두 가지 표현방식으로 드러난다. 하나는 문과학문 전체에 합당한 정당성(reasonable legitimacy)을 부여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관련하여 문과학문을 규제하게 되는 인간에 대한 윤리이다. 이렇게 탄생된 인간이해와 인간윤리는 결코 폐쇄적인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성찰의 대상이자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과학문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목표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존재와 당위, 과학과 규범 사이의 긴장을 창조적으로 이용하면서 오랜 동안 문과학문을 이끌어 왔던 중요한 단어들인 계몽적 과학주의

의 압도와 함께 문과학문의 세계에서 사라진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삶의 역동적 균형으로서의 ‘중용’(中庸, Golden Mean)이나 그 지속을 위한 탁월성으로서의 ‘덕성’(德性, virtue)과 같은 단어들은 그 핵심성에도 불구하고 지취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사라져버린 것들이다. 현대의 문과학문은 이처럼 존재와 당위, 과학과 규범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뿐 양자의 모순적 공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는 (속물적인 요령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아무 것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잃어버린 단어들을 되찾아 다시 중심에 세우는 작업은 문과학문의 기독교적 재구축에 있어서 반드시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시중(時中), 곧 역동적 균형의 사상은 원리적으로 삶의 근본적인 분열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분열에서 비롯되는 긴장은 문과학문의 회피할 수 없는 전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그 긴장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덕성에 입각한 훈련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지만, 그것 역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오로지 분열 속에서도 하나의 총체성으로서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초월(超越, transcendence)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과학문을 근거 지우는 존재와 당위, 과학과 규범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세계란 결코 폐쇄되어 있는 체계가 아니며, 초월적 차원의 개입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월적 차원을 받아들일 경우에 덕성과 그에 기초한 중용은 예컨대 시간적 차원(과거/현재/미래)과 공간적 차원(내면/역사/초월) 모두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현재에 의해 압살된 과거와 미래가, 역사공간에 의한 압살된 내면공간과 초월공간이 복권되는 동시에 그들 사이의 균형이 정면으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초월의 차원을 문과학문의 영역에 재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물음에 관하여는 계몽적 과학주의의 압도 속에서 이미 몇 가지 대안



이 개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성의 끊임없는 비판적 상승작용에서 초월을 초월 그 자체로 근거지우려는 칸트주의의 노선이나, 사회학적 차원에서 원초적 종교성을 삶의 근본적인 범주로 받아들이려는 뒤르케임주의의 노선이 그것들이다. 여전히 기독교의 진리를 문과학문의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담론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노선들은 그 나름대로 상당히 숙고해 볼만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칸트의 철학에서 신적 개입을 요청하는 도덕적 간극(Moral Gap)을 찾아내려는 노력(John E. Hare, 1996)이나 뒤르케임의 사회학주의와 유사한 노선에서 시민종교(Civic Religion)를 정초해 보려는 노력(박영신, 2000)들은 문과학문의 기독교적 재구축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교두보들이다.

그러나 초월의 차원을 문과학문의 영역에 재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글이 부각시키려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난 세기 후반부터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철학적 선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타자의 철학’이다.<sup>11)</sup> 하이데거가 플라톤 이래의 서구철학 전체를 존재자에 관한 탐구라고 요약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탐구로 규정했던 것에 비하여,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에 대한 고통스런 재음미를 통하여 하이데거의 기획마저도 서구철학의 근본적 관성이라 할 동일자중심주의의 한계 속에 머물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런 평가에 기초하여 하이데거와 결별한 뒤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타자중심적 사고를 출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이 새로운 사고가 출발하는 지점은 끝없이 물려서며 결코 세계의 통일을 허락하지 않는 저 무한(無限, infinity)의 경험이며, 이를 통하여 비로소 긍정하게 되는 타자의 존재 그 자체다. 김상봉이 지적한대로 서구적 사고가 근본적으로 나르시시즘의 미망에 빠져 있는 것이라면, 레비나스의 시도는

---

11) 가 .  
 (1996; 2000), (2001), (2001),  
 (2005) .



점에 다시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이다.<sup>13)</sup>

이와 같은 전적 타자의 복권은 문과학문 전반에 걸쳐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우선 초월의 차원을 알지 못하는 종래의 문과학문에서 하루바삐 청산되어야 할 비과학적 잔재로 치부되던 삶의 지독한 분열상은 오히려 곧바로 삶의 근원적 다원성, 즉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거룩한 차이들로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모든 것을 과학으로 환원하는 태도에서 한걸 자유로우면서도 과학적 논리에 더욱 철저히 입각하여 삶의 근원적 다원성을 포착하는 새로운 사회과학이 모색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현재의 사회과학이 자연학의 모사를 통해 스스로를 규범화하려는 유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의미의 문과학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예컨대 지난 세기 후반부를 통하여 사회이론의 영역에서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이 개척한 '자기발생적 체계이론(autopoietic system theory)'은 기독교적 문과학문의 재구축을 위해서도 경청할 가치가 적지 않다. 인간적 요소를 과감하게 배제한 채 기능구조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사회를 이해함으로써 루만은 역설적으로 사회 그 자체의 본질적인 다원성과 변화가능성을 근거 지우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클라스 루만, 2007; 발터 리제 쉐퍼, 2002; Michael King and Chris Thornhill, 2003),

물론 타자의 윤리와 다원성의 사회과학의 공존이 기독교적으로 재구축된 문과학문의 각 분야에 구체적인 성과를 산출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단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몽적 과학주의의 압도 이전에도 문과학문은 존재했으므로, 그 원형적인 모습을 재음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내게 익숙한 헌법이론의 영역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헌법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역사적

13)

( , 2003).

층위 가운데, 복지국가의 차원과 시민혁명의 차원에 가려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고전적 입헌주의(서구로 말하자면 기독교적 입헌주의)의 기층을 보완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입헌주의 정치사상은 원래 절대주의 이데올로기의 안티테제로서 역사에 등장했던 까닭에 인간주권론에 입각한 다른 의미의 절대주의 통치체제가 그 효능을 다해가고 있는 현 시대의 사상적 빈곤을 돌파하는 것에 관해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흥미롭게도, 현실을 지배하는 헌법의 텍스트는 복지국가와 시민혁명의 층위들 아래에 입헌주의 정치사상이 출발했던 시대의 사상적 개념도구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바로 이 잊혀진 기층에 집중하여 포스트모던시대의 언어로 헌법을 재해석함으로써 계몽적 과학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기독교적 헌법이론의 가능성을 열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sup>14)</sup>

전적 타자로서의 신(神)을 예수라는 한 사나이의 얼굴에서 확인하는 것은 학문의 차원을 넘어서는 계시(啓示, revelation)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계시는 계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국면들에 던져지는 존재와 당위의 질문들, 곧 학문적 성찰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언젠가 박윤선이 말했던 바, 계시의존사색으로서의 기독교인의 삶이요, 기독교학자의 삶이요, 기독교학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sup>15)</sup> 여기서 ‘계시’란 예수 그리스

---

14)

( , 2005; 2006).

15) 이 말을 나는 1986년 봄의 어느 주일 사랑의 교회 대예배 시간에 고(故)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었다.

도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표현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색’이란 이 세상, 특히 인간의 사회가 움직이는 법칙에 대한 인간의 자율적 탐구이다. 그리고 양자를 잇는 ‘의존’이란 계시는 완전하되 비밀이며, 사색은 자율적이되 완전하지 못하므로, 후자는 전자에 의존하여 끊임없이 반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학주의나 규범주의의 두 극단은 이와 같은 반성적 성찰의 순환을 반(反)지성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에서 발생하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자신의 지성적 태만을 지성적 교만으로 위장하려는 위선이다. 그리고 바로 이 위선이 현대의 문과학문이 봉착해 있는 위기의 본질이고, 그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기독교학문이 기여해야 할 초점인 것이다.

현대의 문과학문은 초월과 무한과 계시의 차원을 배격하고 삶의 근원적 일체성을 단정하는 가운데 과학 혹은 규범의 이름으로 그 내적 법칙을 확보하고 선언하려는 동일자중심주의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적으로 재구축된 문과학문은 동일자가 아니라 타자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초월과 무한과 계시의 차원을 인정함으로써, 삶의 근원적 다원성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긍하고, 그 깨어짐을 싸매기 위한 여러 갈래의 이론적 노력을 지속적인 계시 의존사색을 통해 역동적 균형(時中)의 방식으로 그때그때 통합해 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문과학문을 향도하는 것이 과학 종속적이거나 규범종속적인 인간형이라면, 기독교적 문과학문을 향도하는 것은 그 양자로부터 자유로운 초월적 중용의 인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베버(Max Weber)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잃어버린 인간형은 원칙적으로 객관성의 윤리나 심정의 윤리가 아니라 책임의 윤리를 따르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신앙적으로 평가하되,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최선을 다해 예측하고, 그 위에서 결과에 책임질 것을 각오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책임의 윤리는 한 걸음 더 진전하는 희생의 윤리일 수도 있다. 계시의존사색을 진행하는 주체로서의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최선을 다해 예측하되, 심지어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까지도 책임질 것을 각오하는, 다

시 말해, 유한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을 각오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sup>16)</sup>

...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른바 책임적 자이는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응답적인 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도출된 것이다. 즉, 사회와 끝이 없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나’에게 과해지는 모든 행위 속에서, 모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용서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로부터 구출하며, 영원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는 한 분의 행위에 대하여 대답하는, 보편적이고 영원히 응답적인 ‘나’라는 사실로부터 이끌어내진 것이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행위는 법에 복종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모든 법을 넘어서는 행위이다(리처드 니이버, 1983: 206).

한편 기독교적 문과학문을 향도하는 초월적 중용의 인간형은 그것을 담을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방식을 요청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구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지만, 한 가지 점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과학주의와 규범주의의 두 극단을 경계하되 항상 두 측면을 함유해야 하는 문과학문의 본질상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방식은 그와 같은 모순적 요청을 가장 손쉽게 답을 수 있는 ‘인간 대(對) 인간’의 구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적 문과학문은 그 본질상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서만 전수될 수 있으므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인격적 만남을 교육과정과 교육방식의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sup>17)</sup>

이 글의 초두에서 ‘문리과대학’이라는 단어를 환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의

16) ‘ , ‘ (dennoch)’  
가  
( , 1994:

152).

17) (Vico)가  
(sensus communis)  
(prudentia)  
( ,  
2002: 61 - 65).

총체성으로서 진리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부담이나 각각의 전공들로 진리를 조각내는 것에 관한 고통에 관하여 나를 포함한 새로운 세대의 대학교수들이 너무도 둔감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물론 문과와 이과의 교수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다시 묶는다고 해서, 그와 같은 경건한 대학정신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문과학문에 관해서만은, 그리고 그 교육에 관해서만은, 존재와 당위, 과학과 규범 사이의 긴장을 창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방식이 긴급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모두가 멀티버시티(Multiversity)의 현실에 묶여 있다고 해서, 유니버시티(University)의 이상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와 같이 문과학문의 기독교적 재구축을 위한 시론의 끝자락에서 그 실현의 무대가 될 기독교적 학부대학(Christian University College)의 필요성이 옳이 떠오고 있는 것이다.

- 강영안 (1996), 『주체는 죽었는가?-현대철학의 포스트모던 경향』, 문예출판사.  
 \_\_\_\_\_ (1998), 『자연과 자유 사이』, 문예출판사.  
 \_\_\_\_\_ (2002),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인문학의 철학을 위하여』, 소나무.  
 \_\_\_\_\_ (2005),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김상봉 (2002), 『나르시스의 꿈-서양정신의 극복을 위한 연습』, 한길사.  
 김동일 외 (1987), 『사회과학방법론비판』, 청람.  
 김연숙 (2001),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박영신 (2000. 봄/여름), “잊혀진 이야기: 시민사회와 시민종교” 『현상과 인식』, 24(1/2), 63-85.  
 \_\_\_\_\_ (2001. 겨울), “정복자와 노예-시장의 유추 에 묶인 대학의 운명.” 『현상과 인식』, 25(4), 55-84.  
 안석교 편역 (1984), 『사회과학방법론논쟁』, 한길사.

- 양희승 (2002, 3-4), “기독교세계관: 담론, 운동 혹은 논란” 『복음과 상황』, 57-63, 42-52.
- 윤호녕 외 (1999), 『주체개념의 비판-데리다, 리강, 알튀세, 푸코』,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국운 (2003), “현대 헌법이론에서 타자 의 복권-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맥락에 서,” 『법철학연구』, 6(2)호, 325-350.
- \_\_\_\_\_ (2005), “입헌적 공화주의의 헌법이해,” 『헌법실무연구』, 6, 497-556.
- \_\_\_\_\_ (2006), “프로테스탄티즘과 입헌주의,” 『신앙과 학문』, 32, 135-168.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1977), 『현대사회과학방법론』, 민음사.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1980), 『사회과학의 철학』, 민음사.
- 니클라스 루만 (2007), 박여성 역, 『사회체계이론 1, 2』, 한길사.
- 리처드 니이버 (1983), 정진홍 역, 『책임적 자아』, 이화여대 출판부.
- 리처드 톡 외 (1993), 강정인 역, 『홉즈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 막스 베버 (1994), 이상률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직업으로서의 정치』, 문예출판사.
- 발터 리제 쉘퍼 (2002), 이남복 역,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사상』, 백의.
- 스노우, C. P. (1996), 오영환 역, 『두 문화』, 민음사.
- 아더 홉즈 (1985), 이승구 역, 『기독교세계관』, 엠마오.
- 아마티아 센 (1999), 박순성의 역, 『윤리학과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 엠마누엘 레비나스 (1996),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 \_\_\_\_\_ (2000),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필립 네모와의 대화』, 다산글방.
- 클린 데이비스 (2001), 김성호 역, 『엠마누엘 레비나스-타자를 향한 욕망』, 다산글방.
- Plantinga, Alvin, (2001), *The Twin Pillars of Christian Scholarship*, in Seeking, Understanding; Stob Lectures 1986-1998, Eerdmans.
- Michael King and Chris Thornhill (2003), *Niklas Luhmann's Theory of Politics and Law*, Palgrave.
- Hare, John E. (1996), *The Moral Gap-Kantian Ethics, Human Limits, and God's Assistance*, Clarendon Press.



ABSTRACT

Reconstruction of Liberal Art and Social Science  
in Christian Perspective -An Attempt

Kuk -Woon Lee(Handong University)

My aim in this article is to present an attempt to reconstruct modern liberal art and social science from a Christian viewpoint. As the famous methodological debates among philosophers and social scientists of the last century showed, modern liberal art and social science have had great difficulty and struggle in dealing with the challenge of Enlightenment Rationalism or Scientific Radicalism. I think that an attempt of Christian reconstruction of them must start in this battle field by understanding the difficulty and struggle in Christian perspective. In Christian understanding,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the world can be analysed with three different relationships; (1) between God and human, (2) between human and human, (3) between human and the other creature. Each relationship defines human concern that leads each academic inquiry; for example, (1) norma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the other creature. And, very interestingly, (2) normative and factual concerns(sollen und sein) together always lead academic inquir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human where liberal art and social

science locate, because human is believed to b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n Christian world view. If the original co-existence of normative and social science should pay attention upon the revival and development of the forgotten methods in which human can bear those co-existential concern together. For this purpose, I request Christian scholars in this academic field to concentrate on some academic trends in recent days such as the Ethics of Others(Emmanuel Levinas), the Autopoietic System Theory(Niklas Luhman).

**Key Words : liberal art, social science, Christian scholarship, Christian worldview, methodology, the ethics of responsibility, the Other, system theory, constitutionalism**